‘1+1’ 행사 얼마든지 가능… ‘묶음’과 ‘판촉’의 오해

환경부 재포장 금지가 ‘묶음 할인’ 자체 금지로 알려져

시행미룬 재포장 금지…“5개입 라면도 규제대상 아냐”

환경부가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규칙을 발표하자 여러개 묶은 상품을 사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판촉행위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다.

결론적으로 묶음 할인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규칙 발표가 ‘판촉행위 자체’가 금지된다는 취지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같은 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일단 제도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재포장 금지가 묶음 할인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아냐

묶음 할인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1+1’ 판매다.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1+1’ 행사는 제품 두 개를 들고가 하나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방법이다.

다만, 대형마트의 경우는 편의점과는 다르게 유통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묶어 판매하는데 우유나 세제 같은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경부의 규칙은 이같은 제품을 이중, 삼중으로 포장하던 유통업체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게 이번 규칙의 핵심이다.

따라서 묶음 할인판매는 이번 규칙이 시행돼도 가능하다. 비닐로 재포장만 금지될 뿐 유통업체가 ‘1+1’ 행사를 하고싶다면 제품 판매 코너에 설명을 통해 할인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재포장에 따른 한 손에 들 수 없는 불편함이 조금 더할 뿐이다.

이는 이번 규칙에 대한 보도가 처음나오고 19일 환경부의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정부는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할인판매가 금지된다는 오해는 관련 개정안을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발표의 근거인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를 보면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 · 수입 ·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할인판매 판촉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종이 띠로 묶어 할인 가능…5개입 라면은 애초부터 종합제품으로 규제 대상 아냐

그럼에도 유통업체가 제품을 묶어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편리함을 추가하고 싶다면 종이 띠 등을 이용해 묶음 할인이 가능하다.

띠를 이용하면 제품 유통과정에서 풀릴 수도 있고 제품 한 두 개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유통업체들의 불만도 있지만, 이 역시 편리함 여부의 문제지 불필요한 재포장을 줄이자는 원칙에 대한 반론이 될 수는 없다.

5면 5개 들이 묶음 할인제품과 명절 선물세트는 애초에 재포장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유통업체가 판촉을 위해 재포장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공장에서 묶음화 돼 생산되는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라 현재처럼 판매가 가능하다”며 “단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유통 과정에서 한 박스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다만, 환경부가 이번 발표 과정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규제대상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밝혔다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적지 않은 혼란을 키운 발표와 보도 때문에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지침)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나 기자

얼굴 공개된 ‘갓갓’ 공범 안승진 “피해자에 미안”

얼굴 공개된 ‘갓갓’ 공범 안승진 “피해자에 미안하다”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을 제작 ·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으로 알려진 안승진(25 · 구속)이 23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의 얼굴이 23일 공개됐다.

안승진은 이날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안동경찰서에 모습을 보였다.

검은색 티셔츠와 아이보리색 면바지, 금테안경을 쓴 그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안승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2015년 갓갓과 전화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호기심 때문”이라고 한 뒤 호송차량에 올랐다.

안동경찰서는 이날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 유포한 혐의(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안승진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10가지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된 안씨는 2015년 3월~2016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여명의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또 2015년 4월 SNS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지난해 3~6월 아동성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2019년 3월쯤 ‘갓갓’ 문형욱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제작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갓갓’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안씨가 n번방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문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전두환 포승 조형물’ 26일 전남 순천 · 여수서 거리행진

전남민예총(이사장 제정화)은 서울 여의도에서 연희동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한 바 있는 ‘전두환 포승 조형물’이 26일 순천, 여수를 순회한다고 밝혔다.

5 · 18 제 40주년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기획한 전두환 조형물 행진 행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순천IC를 통과해 순천대 정문과 순천시청, 순천역을 거쳐 여수를 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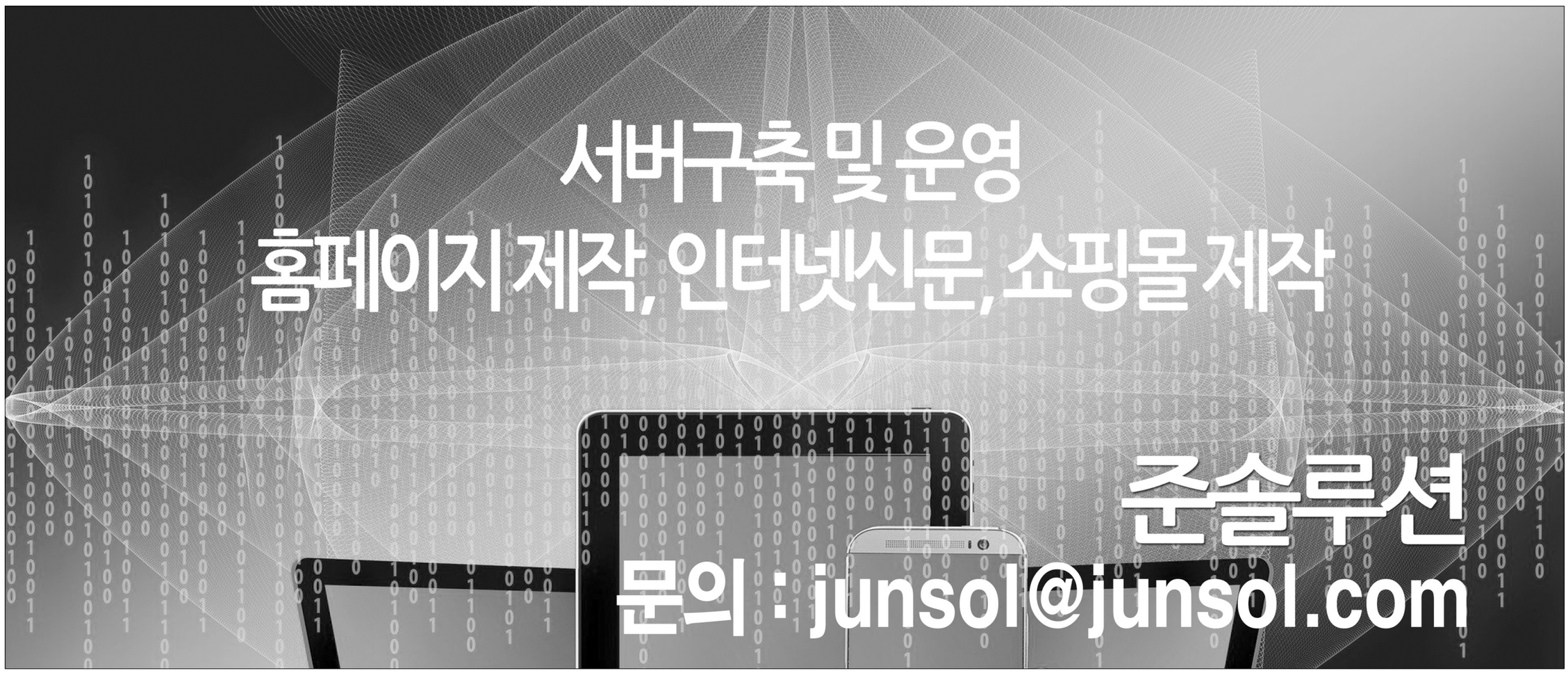
여수에서는 오후 3시30분 여수시청, 웅천메가박스 앞과 여수시의회를 거쳐 이순신광장에 도착, 오후 5시18분부터 전남 민예총 주관으로 ‘5 · 18 제40주년 전남문화예술제’에 참가한다.

다음날인 27일에는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5 · 18민주광장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공동으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여수산단 삼남석유화학 화재 원인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전남 여수시 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감식에 나선다.

전남지방경찰청 감식팀과 여수소방서는 23일 오전 10시쯤 감식 인력을 투입, 전날 오후 발생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5명 내외의 경찰 감식팀과 소방조사관 등이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감식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가 감식 등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